

**전일동향**

전일대비 6.30원 하락한 1,477.20원에 마감

2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6.30원 하락한 1,477.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00원 하락한 1,479.50원에 개장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가 지지부진하나 결국 출구를 향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환율에 하방 압력을 가하며, 1,477.2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6.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9.88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79.50	1479.50	1472.70	1477.20	1475.60
엔화	934.92	935.37	921.34	929.88	-	
유로화	1744.83	1747.12	1721.34	1740.94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7	-3.77	-8.57
결제환율(수입)		-0.25	-2.46	-6.38	-12.83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약달러 흐름에...1,47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77.20) 대비 6.25원 하락한 1,469.6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약달러 흐름과 연동하여 하락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 종료를 앞두고 2차 회담 성사에 집중하고 있다. 양측 모두 전쟁 지속으로 인한 현실적인 부담이 가중되면서 종전의 길을 모색하는 분위기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방향성 부재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듯 협상 관련 리스크는 존재하나, 시장은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 속에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무게를 실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추가 하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달러 실수요 매수세는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466.50 ~ 1476.25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337.8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25원 ↓
	■ 美 다우지수 : 49442.56, -4.87p(-0.0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51.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31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